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 1259호
10월 19일
2024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의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뜨겁고 간절한 기도 ... ‘제2회 한국교회기도의날’ 온·오프라인 수 십만명 합심기도

“지금 우리 나라와 교회는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대전 촉발을 우려케 하는 국제정세,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마약 확산과 중독자 증가, 정치와 선거의 부정부패,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적 신학사조의 교회 침투, 난무하는 이단 사이비... 염려만 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5년 전 이날, 수 십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배부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의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길 것입니다.”

‘제2회 한국교회기도의날’ 기도성회가 10월 3일(목) 국내외 각 교회와 각 처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진행되었다. 은혜와 리교회에서 드려진 기도성회 실황이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 전 세계로 송출되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을 앙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한국교회기도의날 기획집행위원회가 주관하고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와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교회연론회, 한국기독교학림원, 대한기독교노인회, 한국보수시민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주회 및 협력하여 개최되었다.

기획집행위원회에서는 일곱 가지 큰 기도제목에 따른 구체적인 여러 가지 기도제목과 모든 진행 순서를 기록한 소재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또한 영상에 자막으로 띄워 성도들의 기도를 도왔다. 성도들은 노상에 모여서 하는 기도회와 다르게 주변 환경에 영향 받지 않고 시종 차분하고 경건하게, 전심전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시작 전 영상 방영에 이어 기획집행위원장 임영문 목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

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대표)의 기도회 개최 취지문 낭독과 사회로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임목사는 “성경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하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다고 전하고 제2회 ‘한국교회기도의날’ 기도회에 동참하신 모두 현재 우리나라와 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문제들을 이러한 성경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와주시를 전심으로 간구하자”고 강조했다.

김은경·김선웅 솔리스트의 선창으로 다 함께 애국가를 부창한 다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개회기도 후 한국교회기도의날 연합성가대(지휘 김희성 지휘자)가 은혜로운 찬송으로 감사와 기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정목사는 “미신과 가난과 무지와 무능과 부패와 외세 침략 속에서 절망에 빠져 아무 소망 없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며 “이를 통해 하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린다”고 기도했다.

정목사는 이어 “그러나 지금도 북한의 침략 위협이 계속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북한의 동포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이어서 일곱 종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각의 기도시간마다 성경 봉독, 관련 영상 방영, 합심 기도와 마무리기도, 다 함께 찬송하는 순서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리 높여 찬송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시간에 한국기독교학림원 원장 정상운 목사가 말

씀(역대하 7:14,15)을 봉독하고,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두 번째, <악한 사상을 물리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에는 한국기독교노인회 이사장 장상홍 장로가 말씀(시편 1편)을 봉독하고,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유호종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세 번째, <종교다원주의 배격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에는 GNTC뮤지컬 주연배우 박석민 청년이 말씀(갈라디아서 1:7-9)을 봉독하고, 경상북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신재영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네 번째,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에는 울로게오관현악단 지휘자 안세원 청년이 말씀(시편 138:6-8)을 봉독하고,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진유신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다섯 번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은 부산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 강안식 목사가 말씀(시편 37:1-6)을 봉독하고, 충청북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 박상준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여섯 번째, <부정선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순구 목사가 말씀(고전 13:4-7)을 봉독하고, 울산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이우탁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일곱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기도 시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가 말씀(요일 2:15-17)을 봉독하고,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이 각각의 기도 시간마다 관련 영상이 방영되고 송혜원·주소연·성윤주·김선아·이준용 지휘자와 정영환·이재민·장재원 솔리스트가 차례로 은혜로운 합창 찬송을 인도했다.

기도 순서에 이어서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이익주 목사가 12개 항목으로 된 결의문을 낭독했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21장(새 찬송가 586장)으로 찬송했다.

“성경에는 나라와 민족 혹은 교회가 위기에 곤경에 처할 때 주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한 곳에 모이거나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일심으로 도우심을 간구하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위기를 극복하거나 전화위복이 된 수많은 사례들이 기록되어 우리가 그 분을 따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내외의 교회들과 신자들이 ‘한국교회기도의날’ 기도회에 참여하고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더 넘쳐도록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역행하는 자들의 도모가 여러차례 하고도 허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절대 다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기독교총연합기관협의회 의장인 조용목 목사의 끝맺음 기도와 축도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진행된 이날 기도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제2회 한국교회 기도의날 결의문》

1. 나는 사도신경대로 믿는다.
2.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이심을 믿는다.
3. 나는 66권의 성경을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4.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믿는다.
5.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로 건립되었음을 믿는다.
6. 나는 대한민국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시대적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7. 나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게 하심을 믿는다.



8. 나는 한국교회의 간절히 부르짖는 합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나라의 안녕과 발전 및 교회의 부흥이 지속될 것을 믿는다.
9. 나는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을 이루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복음의 도성이 되리라고 믿는다.
10.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적극 지지한다.
11. 나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통합을 단호히 배격한다.

12. 나는 성경적 신앙과 전통적인 건전한 가치관에 배치되는 제도 및 법률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 《국가를 향한 우리들의 요구》
“국민적 의심과 원성이 크고,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되는 망국의 부정선거를 근절할 대책을 세우고, 국민적 의심이 없도록 시행하라.”
-제2회 한국교회기도의날 기도회 참석자 일동



‘한국교회의 밤’(12/20) 롯데호텔에서 개최

한기총, 제35-7차 임원회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10월 8일(화)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5-7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참석 22명, 위임 3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며 개회 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남기주교회협의회(회장 최영봉 목사)와 업무협약의 건은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 11월 중에 협약을 맺기로 했다. 한국기독교복음선교사업단(대표 김택겸 목사) 청원의 건은 회원 단계가 아니기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기총 미주총회 총회장 임명 건에 대해서는 현재 최소 2개 이상의 한기총 미주총회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한기총을 위해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하



되, ‘한기총 미주총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정리하기로 하고, 향후 해외에 총회나 단체의 설립 및 해산 등 결정 사안을 임원회 결의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교회의 밤 행사는 12월 20일(금) 오후 5시에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공동회장 정창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이현숙 목사가 기도하고, 명예회장 김용모 목사가 창 1: 1-2 말씀을 본문으로 ‘창조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박홍자 장로의 기도로 폐회했다.

제43주년 평화의 날 기념예배

기독교지도자협, 전쟁의 종식과 세계 평화위해 기도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김진호 목사/이하 한가지협)는 지난 9월 30일(월)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학교 소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제43주년 평화의 날 기념예배’를 드리고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공동회장 백승억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이강욱 장로의 기도, 공동회장 유경선 장로의 성경봉독, 감리교목사 합창단의 특송, 만수감리교회 성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성중목 목사는 시 9:6, 행 7:60 말씀을 본문으로 한 ‘평화의 왕 예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는 흑백을 가리지 않는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준다. 우리 모두 평화의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공동회장 민승 목사가 ‘나라의 안정과 위정자를 위해’, 강홍복 목사가 ‘세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지구원 목사가 ‘한국교회와 한가지협을 위해’ 뜨거운 합심기도를 했다. 예배는 회계 홍성일 장로의 봉헌기도, 공

동회장 김사철 장로의 시 낭송, 사무총장 한동철 목사의 광고 후 상임회장 최병두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한가지협의 43주년 평화의 날 기념예배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빠른 종식과 평화를 위해 대표회장 김진호 목사의 인도로 합심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로목사 총연, 총재 양창부 목사 취임

“원로목사회 발전 위해 헌신할 것 다짐”



한국원로목사교회 월요예배 및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총재 양창부 목사 취임식이 지난 9월 30일(월)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학교 소재 한국기독교연합회원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안드레 목사 사회로 박만석 목사의 대표기도, 원로목사 찬양대의 찬양, 김화자 목사의 성경봉독, 진보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진보라 목사는 마 6:31~34 말씀을 본문으

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 성경 마 7:7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라는 말씀이 나온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있다. 이 말씀을 삼고하면서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기도

시간도 갖고 박민영 목사가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장광용 목사가 ‘원로목회자들을 위해’, 김중호 목사가 ‘월요예배 부흥을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예배는 계속해 객분자 목사의 봉헌기도, 선홍련 목사의 특별찬양, 조병환 목사의 광고 후 김마리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총재 취임예식은 김원재 목사의 사회로 양창부 목사에 대한 총재 추대장 수여, 김필화 선교사의 특별찬양, 임화영 목사의 임직기도, 류한상 목사의 축사, 임근원 목사의 축하송 순으로 진행됐다.

총재 양창부 목사는 취임 인사를 통해 “부족한 사람을 총재라는 큰 직분의 봉사자로 맡겨주심을 하나님과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며, “주어진 임기 동안 원로목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CTS기독교TV, 제19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 표창

국민 캠페인과 영유아콘텐츠, 아동돌봄 정책 제안 공로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0일(목)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건강한 출산과 육아, 임신부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 유공자에게 포상이 있었다.

특히 이날 CTS기독교TV(이하 CTS)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CTS는 저출생 극복

을 위한 전 국민적 캠페인과 영유아 문화원 설립과 교육 콘텐츠 개발,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 돌봄 활성화 정책 제안 등 결혼과 임신,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CTS 감경철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영유아 보육과 교육 돌봄에 초점을 맞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

쳐왔다”며 “종교방송인 CTS가 20년 가까이 출산장려 캠페인과 영유아 돌봄 콘텐츠를 제작, 방송함으로써 한국교회는 물론 전 국민들의 인식개선에 앞장서게 된 것에 감사하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CTS는 다음세대 콘텐츠 제작은 물론 2006년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와 2010년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며 정부와 사회에 저출생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22년 8월 24일 종교계를 넘어 정치, 경제, 교육 등 우리 사회 주요 지도자들이 동참하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며 저출생 대책 정책제안서 발간과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돌봄 서비스 구축 등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실제적인 저출생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수교대한감리회 제28차 정기총회 개최

이범식 신임감독, “정체성과 거룩성 회복에 매진하겠다”

정통 보수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는 예수교대한감리회가 지난 9월 26일(목) 오전 11시 한강중앙교회(담임 최창규 목사)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총회’라는 주제로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감독에 이범식 목사를 선출했다.

‘교단의 정체성과 거룩성 회복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힌 이범식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예수교대한감리회는 요한 웨슬레의 성결 교리와 복음주의를 핵심으로 삼는 교단이다. 저도 성결을 중요시 여기며 교단과 교회와 모든 성도를 치리하는 핵심으로 삼겠다”며, “거룩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저 자신부터 모든 행위에 거룩함을 이루며 성결한 교단과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예감은 은퇴 이후에도 교단 권

유로 파송을 받은 경우에는 담임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장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교회 문제를 사회법으로 비화시키는 것을 막고자, 교단법에 불복하고 사회법에 고소할 경우 즉시 직을 파면토록 결의했다.

회무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신재혁 목사의 인도로 김태희 목사의 기도, 최창규 목사의 성찬식 집례에 이어 안계수 목사가 담전 4:14~16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와 교회담

게’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안 목사는 “자유주의와 다원주의를 배격하는 보수주의의 산실인 예수교대한감리회를 섬기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교회의 본래적인 목적을 회복하고, 화복케 하라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다음세대의 복음화 비전과 경험 나누다

한국 어와나 “다음세대를 넘어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선교”

지구촌 다음세대의 복음화를 도모하는 한국어와나(총재 송용필, 대표 이종국)가 오는 10월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경기도 용인 한국어와나글로벌센터에서 ‘어와나 아시아 퍼시픽 콘퍼런스’를 연다.

‘Great Connectio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동남아시아 및 환태평양 지역

12개국 어와나 선교사 60여 명이 참석한다. 주최측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선교사들에 영적 성장을 위한 실제적인 도구를 제공하고, 그들의 비전과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겠다는 기대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어와나는 지난 10월 4일(목)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콘퍼런스의 취지와 프로그램에 대

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표 이종국 목사는 “이번 콘퍼런스는 향후 한국 어와나가 아시아-환태평양 지역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건립된 어와나글로벌센터를 통해 해외선교사를 입양하고 그들의 사역을 지원할 것이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 어와나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깊이 있는 예배와 말씀, 기도 시간으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모이는 만큼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각 지역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제1회 꿈꾸는 DMZ 기도찬양제’ 개최

CBMC 문산DMZ지회 “헤이리를 평화의 헤븐리로”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자,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거룩한 기도가 파주시 하늘에 올려졌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강력한 기도로 DMZ를 평화의 땅 ‘마라나타’로 선포했다.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O) 문산DMZ지회(회장 이원유/ 이하 문산DMZ지회)는 지난 10월 3일(목)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마을에서 ‘제1회 꿈꾸는 DMZ 기도찬양제’를 개최했다. 하이예수전도단, 탄현면기독교연합회, 파주시교시협의회가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는 ‘꿈꾸는 DMZ 평화의 땅 마라나타’ ‘어게인 평양 대부흥! ‘오라! 헤이리 가자 헤븐리’를 구호로 3시간여 동안 말씀과 찬양, 기도의 잔



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문산DMZ지회 회원들을 포함해 파주시 교회 관계자 300여 명이 함께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꿈꾸는 DMZ’ 행사는 휴전선 155마일을 기도벨트, 복음전도 통일순례길로 만들자는 목표를 담고 있다. DMZ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과 사랑, 평화의 공간이

되길 바라는 염원이다.

이날 행사는 총 3부에 걸쳐 진행됐다. 컴퓨터 배비뉴 대표 안재홍 목사(성령이살아있는교회)가 전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솔라피데스 색소폰 오케스트라(단장 최승호), CBMC피데스카이어(단장 이용기), 연천CBMC중앙단, 참사랑CBMC 등이 수준높은 공연을 보여줬다.

예장호헌 제109회 정기총회

총회장에 현베드로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총회는 지난 9월 27일(금) 경기도 안산시 석호로 소재 나눔과 섬김교회(담임 현베드로 목사)에서 제109회 총회를 열고, 총회장에 현베드로 목사를 선출하는 한편, 위기극복을 위한 공교회적 노력을 모든 총대원들이 하나 되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동 교단은 이번 총회에서 교단 명칭을 호헌총(구. 정통)으로 환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교단 역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근래 개혁 측과의 통합이 파행(약속 불이행)으로 끝나며, 내부적인 혼란을 겪어야 했던 호헌측은 이날 총회에서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현베드로 목사를 재차 총회장에 세우

며,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베드로 총회장은 “지난 회기는 정말 개인적으로나, 교단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일부의 계속되는 거짓과 약속 불이행에도 참고 견디며, 통합을 추진해 왔는데 결국 그들 스스로 이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총회를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총회는 수호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안정적인 대처를 해나갔다. 특히 우리 교단의 본래 명칭인 호헌으로 복귀해 다시 초심으로 교단 사명을 감당코자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호헌측이 주력으로 활동하는 한국기독교교단제연합(대표회장 현베드로 목사/이하 한기연)을 통한 연합운동 활성화 방안과 반사회적 악법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 생명의 말씀 ■



김 상 용 목사

- 교단 전임총회장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 청주지역기독교연합회장 역임
- 순복음청주신학교 학장
-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역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과 복음을 전하는 방법,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음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야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자격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마리아 성 밖의 네 문둥병자는 아랍 진영에 갇혀 모든 군사들이 도망간 것을 알고 서로 양식을 나눠 먹고, 보물을 숨기다가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함으로 그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

다. 죄인인 사마리아 여자도 전도했고, 나아만의 여종도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시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또한 전도의 대상은 만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중국인, 스리랑카인, 미국인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동서양 오대양 육대주를 막론합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 성공적인 전도 방법

1)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가장 기본되는 사항으로

써 즉,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16절)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는 말씀처럼 그는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훌륭한 학식을 갖춘 사람이 복음 전파에 전 생애를 바쳤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전 5:17)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변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그들이 보고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변화된 모습이 큰 전도의 증거가 됩니다.

3)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꺾박당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구역장은 10명의 구역원이 1명이 되어 어찌 된 일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예배드리라고 하면 피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구역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역장은 구역원이 없어 손녀딸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크게 부흥했습니다.

4) 최선을 다한 후에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윌로우 크릭의 교육목사인 ‘리 스트로벨’ 목사는 ‘시카고 트리뷴’ 법률 담당기자로 14년 간 일하다 회심했습니다. 그가 기자로 일했을 당시, 마감 시간에 쫓겨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마감 시간을 잘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마감 스트레스를 잘 넘기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편집국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난 그 목사님은 신문사에서 친한 직장동료에게 열심히 전도했지만 동료 임에도 불구하고 불쾌할 정도로 냉담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낙심을 한 그 목사님은 전도를 그만 두었고, 그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 후, 그 목사님은 기자 일을 그만 두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자가 스트로벨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

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제 인생에 미친 영향이 목사님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의 인사를 받은 그 목사님은 무슨 일이라고 물었고, 그 중년신사는 4-5년 전에 실직을 당해서 그 신문사 편집실 바닥에서 쪼그리고 앉아 타일을 깔면서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내용을 엿들던 그 중년남자는 그 전도가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스트로벨 목사님께 감사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16-17절)는 말씀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기관차에 인간의 객차를 연결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도 진솔하게 넘어야 한다.

우리 역사 교과서는 정치적 지향에 따라 너무 많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을 가져왔다. 역사는 후대 사람들이 선대에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빠르게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바른 역사를 기록하면 교육이 되고 교훈이 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뒤집고 비틀면 역사의 큰 죄인이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떤 공부보다도 바른 역사를 가르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자라나는 세대의 역사관과 인성을 함부로 도둑질 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담은 교과서는 공정과 진실적 서술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내년부터 사용될 새로운 교과서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충족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통하여 나타난 역사 교과서가 바른 역사 교육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동 정

한복협, '고령화 시대 준비' 주제 발표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임석순 목사) 10월 월례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가 ‘고령화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10월 11일(금) 서울제일교회(담임 김동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에서 조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노동력 부족, 연금 고갈 등 부양 부담 증가, 노인 고립 및 의료용, 노인 빈곤, 세대 갈등 등을 언급했다.

학술대회 '성령 역사' 중심으로



개혁신학회 제41차 정기 학술대회가 ‘교회의 위로와 돌봄: 목회 사역에 대한 개혁신학의 이해’라는 주제로 지난 12월(토) 서울 동작구崇宣대학교 카펠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근수 박사(전 칼빈대 총장)가 ‘목회자의 눈으로 본 에베소서의 성령론’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했다.

7대 구세군 수장에 김병윤 사령관



한국구세군(구세군)의 27대 수장이 김병윤 원 서기장관으로 정해졌다. 구세군은 장만희 현 사령관의 후임으로 김병윤 선임 사령관이 선정됐으며, 취임예배는 내달 17일 서울 중구의 서울제일영문예 열린다고 10일(목) 밝혔다. 김 서기장관은 2000년 사관으로 임관된 뒤 2006년 영국 런던 한인영문 담임 사관으로 재직했다.

제8회 한국기독교영화제



제8회 한국기독교영화제(위원장 이성혜)가 오는 10월 24일(목)~26일(토)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과 메가박스에서 개최된다. KCFF는 영화라는 매체를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독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2년마다 열고 있다.

논 평

한국교회연론회

새 역사 교과서, 바른 교육의 시작이 되기를

내년 신학기부터 사용될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선보였다(중학교 7종, 고등학교 9종) 교육부가 30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중에서 역사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결과적으로는 좌편향에서 조금은 돌아섰다는 평가이다.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라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아예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탄핵으로 인하여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불과 수일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검정교과서’로 바꾼 것이다. 거기에서 당시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교과서에 실리는 일까지 있었

다. 그래서 교과서가 아니라, ‘국정홍보용’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아무튼 이번엔 새로 나온 교과서는 그런 불신을 약간은 불식시켰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멀어졌던 좌편향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편향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는 국가의 정체성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진보·좌파들이 사용하는 ‘민주주의’라고만 표기했었다.

둘째는 건국과 그 대통령에 대한 부정이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왕정·전제주의 국가였다. 국민은 왕의 지배를 받고, 왕을 위한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와

서,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세웠다. 이는 건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셋째는 북한이 상투적으로 주장하는 일방적 내용을 표기한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내재적 점근’은 그들의 선전·선동에 불과한 것이다. 넷째는 6.25전쟁을 포함한 북한의 남침 행위와 북한 정권의 참상을 제대로 서술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발견되는 7종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하여 7종이 서술하였다. 또 보수 정권의 경제 발전에 관하여 6종이,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2종이 서술하였다. 반면에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은 1종만이, 또 북한의 지독한 3대 세습에 대해서는 한 곳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는 보수 정권의 공적(功績)은 무시하고, 진보 정권의 치적만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 확립, 6.25 남침의 절제절명에서 국난 극복, 근대화, 경제 발전, 외교적·국제적 위상, 심지어 정치민주화 시작 등도 보수 정권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공’은 빼고, 오직 부정적인 것만 강조해 왔었다. 그런데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서도 그런 측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앞으로 만들어질 역사 교과서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건국’과 보수 정권의 절대적인 ‘공’과 북한 체제의 잘못됨을 분명히 서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유지되어 온 것이 이웃 나라의 큰 도움으로 된 것에 대해

2024년도 타 교단 가입 교역자 연수교육

교단의 신조와 역사, 성령론 등 전수



교단 2024년도 타 교단 가입자 연수교육이 지난 10월 7일(월)과 14일(월) 양일간 총회본부에서 열려 타 교단에서 본 교단에 가



입을 희망해온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본 교단의 주요신조와 교육과정, 목회방침 등이 전수되었다.

이번 연수교육과정에는 교단신조, 교단헌법, 성령론, 교단역사, 구원론, 교회론 등이 강의되었다.

강사진으로는 교단 총회장 김영준 목사를 비롯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 총무 오세준 목사, 서기 장동근 목사, 재무 최정식 목사, 회계 백영자 목사,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 등 교단 임원진이 교단의 신조와 역사, 성령론, 총회행정 등의 주요내용을 전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전 교육내용에 대한 시험을 치렀으며 교단 총회장 김영준 목사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가진 수료식에서 수료증을 일일이 나누어 주며 교단가입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교단공과신청

출판현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 각 8,000원
- ②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③ 성인용 : 각 8,000원

공과와 관련된 자료

- ①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 아동부 교재를 사용하는 교회에 메일로 발송함
- ② 중등부 교재는 PDF로 제작되어 요청하는 교단 교회에 메일로 발송함
- ③ 중고등부 교육을 위한 영상을 2025년초부터 매주 유튜브로 업로드함

공과신청

- ① e-mail : gntc2922@gmail.com
- ②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③ 신청마감 : 2024년 11월 19일(화)까지
신청과 함께 입금된 수량만 인쇄함

문의

전 화 : 02)2675-5181~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3차 월례회 개최하고 합심으로 기도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9월 30일(월) 전남 광양시 소재 순복음광양교회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 목사는 막 15:16-25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백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고,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으며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의 일에 서로 협력하며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전라지방회 교역자들이 되도록 힘쓰자"고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교단총회와 교단 임원과 정책위원장 목사님과 교단 산하 지방회와 모든 지교회의 발전을 위해, 전라지방회 교회와 목회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며 김갑신 전임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최남성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2부 회의에서는 회원 점명과 총무·서기·회계 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전라지방회 목회자들의 단합을 위한 행사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김갑신 목사의 기도로 모든 회무를 은혜롭게 마쳤다.

순복음광양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애찬과 다과를 먹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회포를 나누고 우리나라와 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라지방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각자의 목장지로 돌아갔다.

은혜소망교회 새성전 이전 감사예배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이은승 목사)는 지난 10월 5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2길 36-2에 위치한 은혜소망교회(담임 장형훈 목사)에서 교회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장형훈 목사(은혜소망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김정순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이정욱 목사(산성교회)의 성경봉독, 이은승 목사(은혜와소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요 10:10 말씀을 본문으로 '균형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열매 맺는 신앙과 삶이 균형 있는 성도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했다.

이어서 김양원 목사(신망애복자재단 대표, 신망애교회)의 권면, 김근배 목사(화도·수동기독교연합회 직전 회장, 좋은 교회)의 축사, 안정빈 목사(전 생명빛전원교회)의 축사, 양향자 목사(드림교회)의 헌금기도, 윤장현

목사(은혜소망교회 당회장)의 인사와 광고, 이은승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지방회원들은 은혜소망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은혜소망교회 새성전 이전 감사예배를 마무리 하고 각자의 목장지로 돌아갔다.

제주교도소 교정위원에 김전수 목사 위촉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김전수 목사는 수 년 전부터 제주교도소 내 교정위원회 기독교분과에서 활동을

해 왔었고 현재 부위원장 직책으로 섬기고 있었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미뤄왔던 교정위원 위촉식이 지난 10월 1일(화) 제주교도소에서 있었다.

이날 김전수 목사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함께 꽃다발과 선물을 받고 각 분과별 교정위원들의 섬김으로 그동안 여러 명의 재소자 분들이 주1회씩 드리는 교도소 내 예배와 신·구약 성경 필사노트 작성(노트 1권당: 2만원씩 영지금 후원)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동부전선 00사단 GOP 유해발굴 장병 위문

군선교위원회, 유해발굴 현장 장병들 노고 격려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 국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10월 4일(금)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가을채비에 한창인 00사단 GOP에서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것은 각종 전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아지 찾지 못한 유해발굴을 위해 역사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발굴현장을 찾았다.

부대장의 안내로 이슬비가 내리는 발굴현장에 도착한 군선교위원들은 장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먼저 예배를 드렸다.

삼척예수사랑교회 성백달 목사는 간

절한 기도를 통해 나라가 없으면 자유도 없고 신앙생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도 취할 수 없는데 선배들의 희생으로 우리들에게 자유와 번영을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고 열심히 군생활을 잘 완수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병들이 될 것을 축복했다. 이어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전 3:1-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유해발굴 현장에서의 발굴작업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닌 만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여 군인으로서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기회

이기에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수고하셨던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금 알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훈련과 교육에 매진하고 이 기회에 최선과 성실함으로 어려움을 딛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서로 손잡아 주고 또 도움을 주면서 인내로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설교말씀을 전했다.

이어 장병들에게 빵과 음료수, 위문품 등을 전달하고 군선교위원들은 고지에서 내려와 각자의 교회로 향했다. 군선교위원회는 다음에는 GOP 중대에 자장면 봉사 장병들을 위문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후원과 기도를 당부하기도 했다.



스포츠 선교회 걷기동우회 모임안내



- ◆11시00분 : 예배 및 기도회
- ◆13시00분 : 점심식사
- ◆14시30분 : 맨발 걷기
- ◆16시30분 : 차와 은혜 나누기
- ◆17시30분 : 식사 후 다시 목회 현장으로

- ☀**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광양은혜와진리교회 담임 : 최형택 목사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천1길 22-15
TEL: 010-3077-8417
- ☀**대상** :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로서 교단을 사랑하고 교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
- ☀**문의** : 정영진 목사 010-3590-3156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

국가의 안보와 대통령을 위해, 부정선거 대책 마련, 지역 균형발전 위해 기도

아산시지도자협의회 제10차 기도회 및 간담회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

아산시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진동웅 목사)는 제10차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도회 및 간담회를 지난 10월 5일(토) 오후 5시 택민교회(담임 이정팔 목사)에서 개최하

고 균형잡힌 지역발전과 국가의 안보, 국민화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이날 행사에 아산시내외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진동웅 대표회장은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당부하며, 아산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상임회장 조이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아산시기독교장로회장 이종관 장로의 기도, 안경숙 강도사의 성경봉독, 상임회장 김병완 목사의 설교, 고문 김소운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롬 5:1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

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예배 후 곧바로 열린 2부 간담회는 상임회장 황창익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의 환영어, 이명수 자문위원(전 국회의원)의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 전국교수협의회 대표 박성기 교수의 '반정부 집회에 대한 견해와 공권력 강화에 대한 방안'이란 제목의 발표 등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와 정치발전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회장 진응용 목사(예하성 전임총회장)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적인 정세가 처처에서 전쟁과 기근, 지진 등 매우 어수선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산시기독교교지도자와 함께 더욱 기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오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회원들에게 환영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박경규 아산시장의 재판결과가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를 당부한 뒤 만학의 사배에 대비하여 이명수 전 국회의원을 차기 아산시장 후보로 헌신도록 촉구하고 아산시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다.

이명수 전 국회의원은 행정학박사로 30대에 금산군수, 충남부지사로 10여 년을 봉직하고 청와대와 중앙주요부처에서 다양한 행정경력으로 아산갑지역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아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아산시 재향병원, 경찰대학교원, 아산경찰병원, 아산고속도로 개통 등의 공로로 국회에서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 상을 10여 회 수상했으며 최우수 감사위원상을 수차례 받기도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반대에 적극



나서 성윤리를 지키는데 앞장서 왔으며 목회자 세습법안과 관련 사례비부분에서 감면조치를 받아내기도 했다. 20여 년 전 천주교 신자였던 그는 진동웅 목사를 만나 기독교로 개종하여 온양은혜와진리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으며 복음화운동에도 열정을 다하고 있다.

이명수 자문위원(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아산시 기독교지도자협의회 목사님들께서 나라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도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세계정세는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는 아산시 지도자 목사님들의 변함없는 기도가 있어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다.

곧바로 이어진 3부 기도는 실무회장 이
정팔 목사의 인도로 공동회장 박차영 목사의
'나라와 민족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공

동화장 서석운 목사의 '아산시발전과 박경리 아산작가를 위하여', 공동회장 차추병 목사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반정부투쟁 근절을 위하여', 여교역자 대표 임인순 목사의 '부정선거와 사전선거 방지를 위하여' 부회장 한선희 목사의 '전통종식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각각 주제별 기도인도를 한 후 만찬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뒤 다음 모임을 기약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4년 부흥사회

부흥사회 가을산행기도회

 일시 : 2024년 11월 4일(월)~5일(화)

❁장소 : 춘천 오순절기도원 (원장:김지훈 목사)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상추곡길 33

※ 침체된 부흥사들의 영정회복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바로세우기 위해 기도

2024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 회 장 김견수 목사 HP : 010-3698-5764
상임총무 조은혜 목사 HP : 010-5649-5121


아산시기독교지도자협의회



제1회 ‘가을 숲속 음악회’ 열려

10월 19일(토), 세계기독교박물관에서



충북 제천 세계기독교박물관이 개관 4주년을 맞아 10월 19일(토) 제1회 “가을 숲속 음악회”를 연다. 소프라노 이경미씨를 비롯하여 메타노이아 관현악 앙상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이 음악회는 이미 소문으로 알려져 전국에서 참석 문의가 쇄도하고 내년도 출연 섭외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힘들고 지루했던 코로나 시절을 떨쳐버리고 교회와 지역사회가 가을 밤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었고 박물관이 추진해 오던 ‘기독교 골짜기’ 프로젝트도 힘을 얻을 전망이다. 동네에서 이장이 200여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였고, 주차 정리도 자율방범대가 봉사한다. 이날 행사에는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김창규 제천시장이 축사를 하고, 임태영 국회의원도 격려사를 맡았다. 세계기독교박물관장 김종식 목사는 “이번 음악회가 20명의 도슨트들이 스스로 재정을 마련하여 준비한 음악회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전국에서 많



은 성도들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년에 문을 연 세계기독교박물관은 이스라엘 등 전 세계에서 수집한 성경에 나오는 사물 1만 3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옥합 등 진귀한 물품 1,5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관람객은 연간 2만여 명에 달하는데, 음악회 당일에는 오후 4시부터 전시관 일부를 무료로 개관한다고 한다.

(문의 043-651-0191)

김준수 목사, ‘성경의 부부들’ 출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부부였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 사람인 김준수 목사(맑은세상교회)가 ‘성경의 부부들’이라는 제목을 달아 이색적인 에세이를 펴냈다.

김 목사가 에세이를 펴낸 건 3년 6개월 만이다. 그는 지난 2021년 4월 ‘예텐의 언어’라는 에세이를 펴낸 뒤론 소설책과 신학책을 써 왔다.

김준수 목사가 이번에 출간한 ‘성경의 부부들’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부부들의 삶과 애환을 다룬 에세이다. 김 목사는 이 책에서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은 우리와 똑같은 부부였다”고 전제하고,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복잡한 현 시대를 살고, 그들은 고대의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등장해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하나님같이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한다.

김 목사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이나 오늘을 사는 부부들이나 한결같은 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몸을 이룬 부부들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부부들이나 우리들 평범한 부부나 다 같은 부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중요하고, 질투하고 경멸하는 사이”라고 덧붙혔다.

김 목사는 또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고 하면서, “결혼은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창세 때부터 현실로 반영된 것이다”고 밝힌다.

김 목사는 “결혼은 선택한 하나님께서 인류의 선과 행복을 위해 만들어 낸 축복의 통로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놀라운 선물이므로, 결혼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배운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간



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 목사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두 가지로 밝혔다. 하나는, 결혼생활의 신비와 풍요로운 은혜 때문이라고 한다.

김 목사 부부는 올해로 결혼한 지 44년째다. 김 목사는 “결혼 햇수 44년이라면 부부생활을 통달할 만도 하련만, 아직도 사랑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감도 못 잡고 정글 속에서 헤매는 때가 많다”고 하면서 스스로 터득한 부부생활의 깨달음과 경험을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목사가 이 책을 쓰게 된 또 하나의 동기는, 한국 사회의 무너지는 부부관계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혼율도 걱정이지만, 정말 걱정스러운 건 기독교인 부부들도 불신자를 못지않게 갈라서서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민족 통일 독트린 논평

윤대통령의 3대 통일 비전과 전략을 자유민주주의의 우회로를 통한 민족주의로 실천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8월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민족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광복절 선언문은 예년과 다르게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언급이 빠진 대신 통일 독트린을 주의 국어로 담고 있다. 식민 지배라는 과거사를 뛰어넘어 자유와 인권에 기초한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통일이 진정한 광복의 완성이라고 선언하였다.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이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광복과 통일을 연결하는 통일 구상을 공개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유와 평화’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자유 통일론을 주창하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는 1919년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945년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6·25전쟁, 전후 성장·민주화 과정은 ‘자유와 평화’라는 인식이 깔렸다”며 “자유 통일을 통해 북한 주민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진정한 광복이란 인식”이라고 했다. 이에 살롱나베는 광복절의 통일 독트린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과 한국교회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섬세한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자유, 창익, 평화의 나라라는 통일 3대비전 환영한다.
<통일 독트린>에 나타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는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는 <통일 3대 비전>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문명국가라면 함께 꿈꾸는 비전임을 인정하며 적극 환영한다. 자유는 인류가 걸어 온 문명의 길이고 거스를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또한 창의에 바탕을 둔 건전한 경쟁에 의한 풍요로운 나라 건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나아가 대

한민국은 K-컬처, K-푸드, 통상과 무역, 새마을운동의 보급 등을 통해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분단을 넘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나타난 역기능을 고려하는 섬세한 보완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즉 자유는 무조건적 자유가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책임적 자유여야 한다. 또한 무한 경쟁에 바탕을 둔 창의성이 아니라 경쟁에서 밀린 자도 보상되며 함께 가야만 하는 복지국가 비전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거도 잊지 말아야 하며 주변국들과의 역학관계 및 외교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에 깨어있기 위함이다. 약속강식의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미국, 소

남북 관계를 규정하고 남침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남만은 없다. 자국의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다. 과거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2.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갖기 위해 ‘같은 민족’의 의미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통일 독트린이 제시한 <통일 3대 전략>은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같은 민족’이라는 전략의 기반에 대한 깊은 숙고와 책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민족이라는 함수는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다. 그럼에도 그 함수는 남에

라는 우회로를 타고 다시 민족이 부상되는 날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역사의 진전은 불가피하게 갈등과 우회로를 거친다. 이제 때가 되어 독트린에서 동일 민족이 중요한 변수가 된 이유이다. 통일의 당위성은 ‘동일 민족’이라는 그 의미를 다시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그러나 ‘동일 민족’이라는 함수는 유대계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가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의 다름을 무조건 무시하고 획일성을 강조하는 전체성(totality)의 국민의식에 머물면 안된다고 본다. 먼저 남과 북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무한 책임을 지는 국민의식이 요청된다. 자연히 이 과정에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이 드러나며 국민의식은 통일에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를 견인한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 구소련의 해체만큼 인류역사의 극적인 사건은 없었다. 이 극적인 사건들은 자유와 인권을 갈망하는 민족적 열망이 분출되어 솟아오른 것이었다. 그 사건에서 전쟁은 없었다. <통일 독트린>이 강조하는 자유와 평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남과 북의 국민들 가슴 속에서 융출되어 분단된 절조망을 녹이는 그 날로 꼭 승화될 것이다. 인권이 말살되고 개인적 창의력이 고갈되고 자유가 없는 체제로는 그런 역사의 발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을 통해서 자명해진 것이다. 이제 남과 북 모두는 갑자기 찾아오는 이 역사의 분수령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그 통일은 기적 같이

은 자유와 인권에 대해 적응이 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

통일은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통일에 공짜는 없다. 광복은 선물처럼 왔으나, 1919년 3월 1일 독립만제와 국민과 애국지사들의 눈물과 땀, 희생과 투쟁이 없었다면 광복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일회적으로 주어진 것(given)이 아니라 과제(task)다. 끊임없이 이행해 가야 할 과제다. 대통령의 광복절 통일 독트린은 명목상 옳다고 해서 그런 꿈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기간의 열망과 지혜로운 헌신을 통해 이룩된다.

5. 국민은 통일을 원하는 만큼 한국교회도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자.

2024년 8월 3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표한 올해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8.0%가 ‘통일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39.9%, 어느 정도 필요 38.1%)고 답변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두 분기 연속으로 상승해 2018년 3분기(78.3%)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은 통일을 잊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미래상에 관한 질문(최대 2개 선택)에는 ‘자유, 인권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 실현’(47.4%), ‘국가 성장동력 강화 및 경제적 번영’(44.9%), ‘핵·전쟁 등 안보위협 해소’(42.3%),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22.7%),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22.0%) 순으로 답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우리 국민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

통일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우회로를 통해 찾아온다. 외부의 힘으로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 1945년 8.15 광복은 1919년의 3.1운동과 그 후의 독립지사들의 거룩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 민족의 통일도 기도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무한 책임의 자세를 통해서,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2024년 10월 7일
살롱을 꿈꾸는 나비행동

〈통일 독트린〉에 나타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는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는 <통일 3대 비전>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문명국가라면 함께 꿈꾸는 비전임을 인정하며 적극 환영한다.

자유는 인류가 걸어 온 문명의 길이고 거스를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런,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이라는 변수 속에서 최민국의 위치를 떨치고 일어나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의 리더 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은 가져 얻어진 것이 아니다. 중국에 당한 오랜 수모, 36년의 일제의 강압, 그리고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나 폐허로 변한 강산을 다시 일궈, 산업화와 민주화의 길을 걸은 지도자들과 국민의 피와 눈물, 그리고 결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

지금도 중국은 나진과 선봉, 함흥과 원산을 통한 태평양 진출이라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고,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거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로

서 많이 잊혀 있고, 북에서는 의도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그러다가 광복절 <통일 독트린>으로 되살아 난 것이다. 이제 민족의 의미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단일 언어, 단일 혈통, 지정학적 전통에 기초한 민족주의 통일론은 자유민주주의 성장이라는 우회로를 거쳐야만 했다. 그리고 이제야 자신있게 민족 통일 논리로 살아난 것이다.

광복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자유진영과 김구로 대표되는 민족진영간의 대립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 자유진영은 공산진영과 대립했으므로 불가피하게 민족진영은 자유민주주의

3. 인권에 기초한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 독트린>이 제시한 <7대 통일 추진 방향>이 흡수통일이라는 오해를 벗어나 진정한 대화와 인권에 기초한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통일이 되기 바란다. <7대 통일 추진 방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해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에 대한 지지

울 수도 있다.

4. 국민 차원의 통일을 지향하는 지속적인 국민 운동 제안한다.

자유와 인권에 기초한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며, 나아가 범국민 차원의 통일을 지향하는 지속적인 국민 운동을 제안한다. 통일은 남과 북의 현실을 바탕에 둔 과제(task)이며 지속적인 책임이다.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통일을 위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을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사적으로 이미 공산주의체제 하에서 인간

CTS·디멕스, 미디어선교 헌신 신은경 권사에 감사패 전달

유튜브 채널 <위드바이블> 신은경 권사, 성경 완독 업로드!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의 IT 자회사인 디멕스(DMEX Inc, 대표 김재환)가 기획,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위드바이블>에 전 KBS 아나운서인 신은경 권사(장충단성경교회)의 성경 66권 전권 낭독 콘텐츠가 업로드 되었다.

이에 CTS와 디멕스는 지난 9일, 미디어선교에 헌신한 신은경 권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성경 읽기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동역하기로 다짐했다.

신은경 권사는 “인생의 고난 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로 성경 66권 전권을 낭독한 지난 6년의 시간은 개인에게도 큰 선물이 되었지만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선물이 되어 거룩한 신앙 유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튜브 채널 <위드바이블>에 업로드 된 신은경 권사의 시편과 잠언 낭독은 각각 3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성경 전권의 낭독 콘텐츠를 업로드한 <위드바이블>은 총 누적 조회수 2,000만회를 기록하며 전 세계 85개국의 시청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위드바이블>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 디멕스는 이번 성경 읽기 콘텐츠의 성공을 계기로 청취자의 편의성을 강화한 속독 버전, 테마 성경 낭독 등 더욱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서비스하며 글로벌 미디어시대에 맞춘 새로운 선교 전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CTS의 IT자회사인 주식회사 지로드코리아는 디지털 미디어의 대전환(Digital Media Exchanger)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주식회사 디멕스(DMEX Inc)로 사명을 변경했다.

세기총, 제50차 일본 도쿄 통일기도회

“우리의 사명은 통일 위해 기도하는 것”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총)는 지난 10월 1일(화) 오전 7시 30분(현지 시각) 일본 도쿄에 있는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담임 구자우 목사)에서 ‘제50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일본 도쿄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도회는 동경성시화운동본부(공동회장 정순엽 목사·오영석 장로)와 공동주최 했으며, 세기총 평화통일기도위원회 주관으로 드려졌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드린 기도회는 그동안의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기도회의 역사와 취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준비위원장 정순엽 목사(동경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의 환영사와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의 대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사를 전한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는 “통일의 길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호소해야 가능하다”면서 “통일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취



지를 알렸다.

이어 구자우 목사(동경성시화운동본부 부회장·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담임)의 대표기도가 있었으며 유진희 목사(분당햇빛교회)의 성경봉독 후 테너 황진호 집사(미동북부 기독교음악부흥단장)와 지구촌선교회 위임선교단(단장 오주운 목사)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날 말씀에는 김요셉 목사(세기총 제3대 대표회장)가 ‘우리도 하나 되게 하소서’(요 17:21-23)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했다.

김요셉 목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며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남북도 하나 될 수 있고 동경의 성시화, 즉 거룩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구촌선교회 위임선교단의 현금찬양과 곡선신 전도사(살롱장로교회)의 현금기도가 있었으며 육민호 목사(세기총 공동회장)의 인도로 특별기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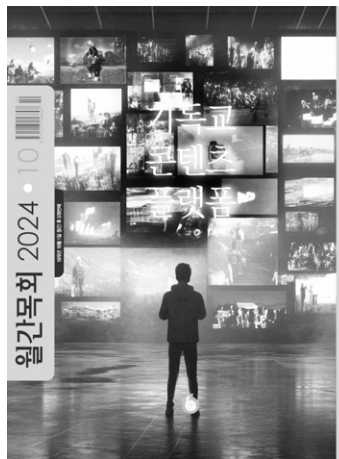
월간목회 10월호 특집 기독교 콘텐츠 플랫폼

‘사명’이 ‘수익’에 매몰되지 않을 때, 그 ‘사역’은 빛이 난다. 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훌루, 애플 TV+, 티빙과 같은 국내외 OTT기업들이 주도권 경쟁을 펼치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생태계에 대법하게 등지를 튼 기독교 미디어 기업들이 있다.

이 사역의 필요에 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그 누구도 선포 나서기 쉽지 않은

일이다.

「월간목회」 10월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그 필요에 집중하며 이 사역에 기여해 헌신함으로써 분투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담았다. 익숙한 이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생소한 이들에게 이 시대 미디어 플랫폼 사역의 필요와 가치가 온전히 전달되기를 소망한다.



제2회 인류애실천 분중문화상 시상식

문화예술단체 9곳, 문화예술인 52명 수상

대한민국의 언론 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한 제(인류애 실천분중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2회 분중문화상 시상식이 지난 10월 5일(토)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에서 열린 가운데, CCM 가수 박종호 장로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약 5억원 규모의 이번 시상식은 기독교계 주최하는 시상식 중 단연 최대 규모다.

박 장로는 “늘 인터뷰 때마다 묻는 질문이 있다. 서울 데 다니며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왜 복음성가 가수가 됐냐고 말이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노래하는게 이 세상 최고의 가치라고 믿었다.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감격을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문화예술단체 9곳, 문화예술인 52명이 수상(기독언론인 4명 포함)했다. 이번 제2회 <분중

문화상> 상금은 ‘언론문화상’을 포함, 총 4억8,100만원으로 지난 해 제1회 시상식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번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2회 분중문화상 <언론문화상> 시상식은 2024.11.16.(토) 오후 2시 매일경제(서울 충무로 소재)사옥에서 따로 진행된다.

재단이사장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는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전과 목표에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데 이 상(儻)의 의미가 있다”면서 “<약속대로, 정한대로, 끝까지 인물>이라는 목표 아래 생명의 구원과 생활의 바름과 감격, 빵과 함께 복음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약속과 원칙은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신록 깊은 언덕

신록 깊은 언덕 산하리 쉬어가는 백운 걸린 청산이며 가시는 이별 서러워 봄비에 신록을 적신다. 아- 그리운 님, 가는 세월 하루가 천년인데 마음 붙잡을 길 없어 천년을 하루로 접었다네. 아, 그대여 온 몸으로 살아온 세월 있어 우리 모두 함께 울고 웃었도오.

지금 여기 있어 눈물의 순수건 적셔 만발치 이별이 기다리네. 우리 여기 있어 가시는 길을 차마 붙잡지 못하네. 마음 띄어 한 세상 구십이라. 천상의 송가 가슴은 시려운데 눈물의 무게 견딜 길 없어라.

해 맑은 동편 찬란한 영광의 나라 눈물 없고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품이어. 가시는 길을 이내 편히 쉬소서.



가시는 길을 이내 편히 쉬소서. 서울역 노숙인 대상으로 눈이오나 비가오나 추우나 더우나 복음전하는 이재민 목사. 귀한 사역위에 가족세트전도 총재 박영수 목사는 스태프들과 함께 위로잔치를 통하여 전도집회를 하였다. 18년 전 이재민 목사는 가족세트전도 훈련 받고 서울역에 노숙인 대상으로 현장전도를 실행하는 가족세트전도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노숙전도왕이다. 너무나 아름답고 보람 있는 모습이다.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전국에 여러 분야의 전도왕이 탄생했다. 새벽전도왕, 마스크전도왕, 노숙전도왕, 춘천지구전도왕, 현장전도왕, 모포전도왕, 홍보전도왕, 실전전도왕, 양육전도왕 등 놀라운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이제는 해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신다. 지난번 목숨 걸고 다녀왔던 방글라데시. “선교다운 선교했다”라고 후감을 얘기했던 필리핀 선교 전도대회, 이번에는 인도선교 전도집회.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도전도집회를 출발한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함께 부탁드립니다. 바이다.

가족세트전도총괄 사무총장 시인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1)폐쇄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송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간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오랜 친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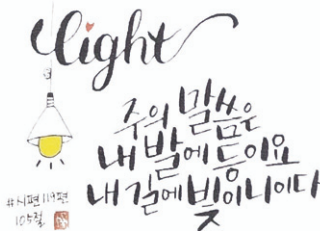
사랑하는 친구!
그동안 잘 지내셨는가?
돌아보니 우리의 우정이 우리의 나이만큼이나 되었네. 죽마고우니까 그렇지 않나?
누가 말했다고 하는데 ‘웃은 새 옷이 좋고, 포도주와 친구는 오랜수록 좋다’고 아들의 취직은? 작년에 졸업하고 직장이 뜻대로 안된다고 걱정 하더니, 직장 잡기 어렵다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군. 엄마 없이 혼자서 자식 키우느라 수고 많았는데, 다 잘 될 걸세 친구.
사실 우리네 아버지들이 강한 것 같지만, 우리끼리 말이지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혼자 울 때도 있지 않은가.
친구도 알 것 같은데, 내 아버지가 동네에서 호랑이 아니셨는가. 그런데 어느 날, 내 어릴 때 아버지가 우시는 것을 보았네, 물론 술을 잡수셨지. 기억되는 말은 ‘호랑이가 자기 새끼 잡아먹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었네.
그건 그렇고, 친구가 내게 ‘교회는 잘되고’라고 물었는데, 교회를 친구가 하는 사업처럼 생각하고 말했는지는 모르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 되신 거룩한 생명공동체이니까 잘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친구는 천주교인이나까 잘 이해할지 모르나 결국은 그럴 것이 분명하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고 사실이라네. 친구, 이제 마리아 앞에 머리 조아리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나. 언제 나와 약속하지 않았는가?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을 친구는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다네. 사람들의 생긴 모양이 모두 제각각이듯이 생각도 다양하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교회를 천사들의 모임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순진한 걸세. 교회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의인되게 하시고, 거칠고 사나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보내는 곳이지,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교회는 때로 이해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더러 있으나, 눈물 나도록 고마운 사람들이 더 많지. 또한 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악된 세상, 악의 무리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서 수 천 년을 이어오지 않는가?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굳게 서 갈 것일세.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시고 목사라고 하셨지. 친구는 목사를 고상한 직업으로 보는 것 같은데 내면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 늘 직면해 있고 악한 적에게 표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네. 문제는 늘 악한 세력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친구는 군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해서 잘 알겠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어디 쉬운 게 있었는가?
교회는 항상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네.
기도의 의미와 그 능력을 안다면 기도해 주게, 친구를 위하여, 나도 계속 할 거라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구름기둥... 불기둥...



밝고 환한 낮일 때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구름기둥의 하나님.

일상적인 평안한 삶
살아갈 때도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인도 하시고.

칠하듯같은 어두운 밤일 때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신
불기둥의 하나님.

불같은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말씀의
불기둥으로 인도 하시네.

옛적 그 광야를 지날 때
함께하신 주님께서
지금 지나는 이 광야 길에도
동일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네.

출애굽 마지막장을 읽으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의
마음을 글로 남긴다.

사설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이유를 하도 많아서 한두 가지로는 꼽을 수가 없다고 한다. 굴종적인 대북·대중관계, 극단적 정치 양극화를 조래한 적폐 청산, 원전 생태계 파괴, 청와대 조직을 동원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서해 공무원 피살 방관, 탈북자 강제복송 등 등....
이런 술한 악행들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결정적인 요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조국 사태요, 다른 하나는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것들은 정치, 이념 문제이지만 두 사안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정의감을 거스르고,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는 진보 좌파 정치인과 극성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로 진영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 일로 상당수 지지자들이 돌아섰다. 그러나 평범한 생활인들까지 돌아서게 만드는 건 부동산과 같은 민생 문제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재명 당 대표는 지난 5일 말해도 안되면 징치(懲治, 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한다고 말했다. 10.16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한 말이다.
그런가하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정권 끝장국감’이라고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말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발언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이라는 답은 간단하게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총선 유세 등에서 ‘박근혜 정권도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 같은 발언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맨 처음 입에 올린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다. 그런데 또 윤 대통령 탄핵 얘기를 꺼낸 것이다.
왜 이런 말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할까? 단순히 선거용 발언이 아니라 11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야권의 총결집을 의도한 것이라고 입을 모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가지회전에서 ‘이 대표 발언은 대의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말로 해석한다.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얘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지도부가 일반론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대표가 직접 탄핵을 꺼내 든 것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다음달에 1심 선고(선거법 위반·위증교사)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파선거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키고 대선을 앞당기려 한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 방탄용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폭주를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을 시작으로 이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탄핵으로 압박해왔다.
현직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경우 국민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집요한 그들이 멈출까? 지난해 말 좌파 단체들이 주관한 ‘윤석열 퇴진 집회’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강득구 의원은 좌파 단체들의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에서 열어주기도 했다. 탄핵 수위를 계속 높이며 레드라인을 넘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은 어떤 제도인가? 고위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권력을 남용하는 비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런 제도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법 혐의를 수사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이 말하는 대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동행 명령 발동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탄핵소추를 추진한 검사 4명이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들 중 3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거부하면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금 민주당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 17:26-47)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3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3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4년 11월 14일(목)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1월 1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5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영 준
총 무 목사 오 세 준